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중앙승려회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이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도의 길 망상의 길 한 생각이 좌우

17면에서 계속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금강어리가 돼서
자불과 통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사의 진
단이 암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름뿐임을
알고서 '주인공, 아프게 하는 것도 너라
면 건강하게 이끌고 가는 것도 너잖아.
그러니 너만이 낮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해 주십시오. 그 암이라는 이름에 덜컥
걸려서 '아-이제 죽는구나' 라고 미리
생각부터 죽어버리니 몸안에 있는 생명
들이 무슨 기운을 차리겠습니까? 가족들
이나 친지들한테도 미리미리 관하는 법
을 알려줘서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게 바로 눈물 덜 흘리

관세음도 주인공 나뭇인지

문 저는 스님 법문을 접한지 얼마되
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어
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부
처는 통째이신고로 병이 나면 의사가 돼
주시고 가난할 때는 관세음이 돼주시고
죽어서 갈 때는 지장이 돼주신다고요. 그
러면 그렇게 나누시는 분이 주인공입니
까?

답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태양이
라 해도 좋고 자가발전소라 해도 좋습니
다. 주인공이 만약 태양이라고 봅시다.
태양은 어디고 다 비추잖나. 마음을 열
어놓은 사람은 다 비추게 돼요. 태양은
항상 밝게 떠 있는데 내 마음이 열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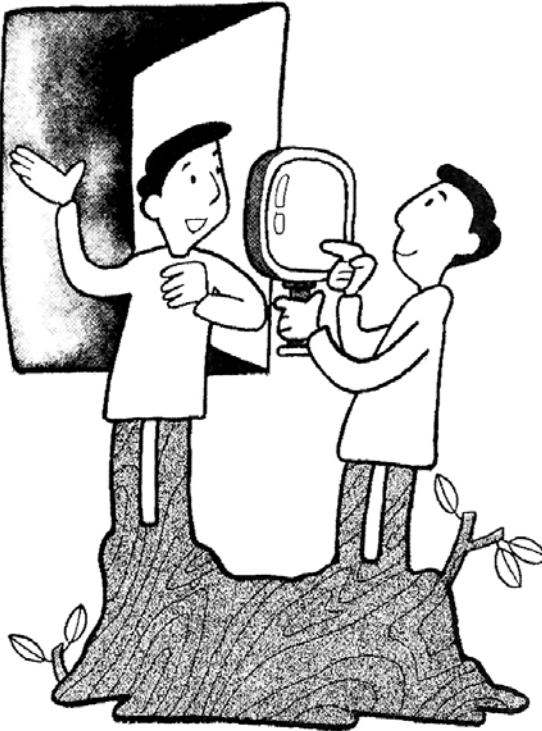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태양은 어디고 다 비추지만
마음이 열리고 달렸는지에 따라
빛을 받기도 못받기도 합니다”

고 사는 길이에요. 이 공부를 사순살한테
가르쳐준다면 아마도 가장 소중한 유산
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 마리의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보다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
르쳐준다면 평생의 양식이 구족할테니까
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
이 그대로 자발함을 알아서 여여하게 살
아라 그랬습니다. 스스로에게 다 갖추어
져 있고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도 다 자
신안에 들어있다고요.

사계절이 오는 것을 다시한번 보세요.
전부 스승입니다. 세상만물이 전부 스승
아님이 없이 갖추어져 있는데, 마음이 들
떠서 여기 저기 말을 구하려 다닙니다.
말이 아무리 좋고 이론이 좋았던들,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
도 떨어질 텐데 그 말을 좋다고 들으려
다닌다면 그 나무에 짝이 나겠습니까?

지 달렸는지에 따라서 빛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
자가발전소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온갖
용도별로 소입의 코드가 각각 갖혀 있습
니다. 관세음코드, 지장코드, 칠성코드,
약사코드, 산신코드, 해신코드 등 용도에
따라 다 있어요. 그러니 용도에 따라 부
르던 거기에 맞는 보살들이 응성이 돼서
나에게 되죠. 보살들도 한 뿌리에서 나온
삼부름꾼일 뿐이에요. 방편으로 이름만
달라 붙인 거죠.

그래서 안과 밖을 다 조복하라고 그러
는 겁니다. 모든 의식들이 따라줘야 조복
이 되는데 의식들도 한곳으로 몰아주
지 않으면 산만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
니 한군데다 몰록 놓지 않는다면 내 몸
속의 의식들인데도 간수하기가 어렵고

‘관’ 했더니 문제 잘풀러

문 저는 책을 통해서 스님을 알게 된
초심자입니다. 책에서 관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일상생활에서 직지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갑니다. 그 중에 하나
신기한 것은 선원을 찾아올 때 '주인공,
네가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내가 찾아가'
하고 관했더니 정말 처음 찾아오는 길인
데도 너무 쉽게 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
리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자성분래불' 이
라는 명목을 자주 마음속으로 해봤더니,
여전에 느끼지 못한 편안함을 느끼게 됐
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인지, 아
니면 관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답 그게 그냥 관하는 거죠. 바깥으로
찾는 게 아니니까요. 내 마음안에
다 묻고 달리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선 우연이란 게
없어요. 어떤 결과든지 반드시 원인이 있
죠. 내가 한 생각 갖던 것이 맞성을 풀다
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그걸 몰라서
우연이라고 할 뿐이죠. 앞으로 계속 내
안으로 관하게 된다면 많은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놈이 다 하는 거예요!

얼른 쉽게 말해서 '아무개야!' 하고 부
르면 '네' 하고 대답하고, '스님!' 하고
부르면 '왜 그러느냐?' 하고 답을 해야
할텐데 불려도 아무 말이 없다면 그 얼
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불
렀고 내가 대답했으면 그뿐이지 뭐가 또
있느냐? 내가 있으니까 나를 불렀고 내
가 있으니까 대답했지 않느냐 이런 거와
같죠. 그러니까 딱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도 당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모습을 형성시켜 놓고 거기에 들
어앉았는 본래의 자발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발의 주인공을 진
짜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 세상에 자기 배놓고 누구를
믿을 데가 있습니까? 자기를 이끌어 가
는 자기 주인공을 의심하게 되면 거기에
별의별 다 들어요. '정말 그렇까? 정
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든가
급한 일이 생겨도 '주인공 부른다고 뭐
되냐?' 이라던면 그것은 영영 소생을 못
하죠.

주인공 빨리보고 싶어요

문 스님, 저는 주인공에 관하는 것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는 가끔 '주
인공, 나는 너를 모르지만 내가 너를 빨리
만나고 싶고, 느끼고, 이해하고 싶은
데 넌 어때? 내게 나타나야 너를 시봉할
수 있지 않겠어. 얼른 내게 좀 와' 하고
관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것인지 가르
침 주십시오.

답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좋지 않
을까요? '주인공 본래 내가 있다는
데 내가 있으니까 너도 있겠지' 라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지금 당신이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미 그
놈이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인데, 오라
가 할 것이 어디 있나요? 몸뚱이 움직
거리는 게 전체 다 그 놈이 하는 건데
왜 못 믿고 그러세요?

공부가 기복위주 된것 같아

문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어떤 문제
가 생기면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우선 관하게 됩니다. 주인공
에 말고 공부한다 하면서 스님께 질문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신의 문제 혹은
가족의 문제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그
것이 주인공을 일려고 하기보다는 개인
행복 위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
들은 그게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
아니냐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진
짜 욕심이고 기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의 가르침 청합니다.

자기 내면으로 즉, 나왔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
로지 한 구획으로 관하고 들어가는 걸
기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항상 얘기하
지만 나무에 수음이 가지가 뻗고 잎이
나도 그 뿌리는 하나죠. 그것처럼 천차만
별로 벌어지는 세상사도 그 나온 자리는
결국 한 군데서 나고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잘 되는 일은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일은 '안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되
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
고 거기다 굴러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다고 하는
데 남의 격정하는 것도 그렇고 너는 거
여.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일에
참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 남이
좀 못하게 보이더라도 '전자에 못났을
때의 모음이로구나' 하고 자기 탓으
로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저승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어느
누구든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인연이
된 사람한테는 관하는 걸 일러주고 또
같이 마음을 내주는 거죠. 오다 가다 그
렇게도 건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자제가 내 인연이니까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관해지게 되죠. 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이,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처님 법이예요. 부처
님의 공법이예요. 그런 '부처님은 공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없' 하겠지만 이미 우
리를 하나하나가 공법으로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생명들이 한데 더불어 같이 살
면서 행하니까 공법이죠.

불법과 인간법의 조화

문 저는 심성과학 연구원 사회과학
분과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쭙

어 보고 싶은 것은 저의 전공 과목인 정
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한 세대 동
안에 가장 낙후된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분이가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 하반기
내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난국을
맞이 했으면서 지혜를 결집시키지 못하
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는 데만 국민적
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은 IMF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정치학
을 오랫동안 배워왔고 정치학을 오랫동안
안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인터럽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정치 사상가들이 이상적인 정치라든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이론을 펼쳐왔지
만 정치의 현실적인 상황은 항상 그 이
상적인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사상가
들은 신의 국가와 인간의 국가가 이중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면에서는 인
간의 국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견
해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 부
처님 법과 인간사회의 법이 둘이 아닐
텐데도 실질적으로 정치의 현장에서 별
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제가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법의 차
원에서 보셨을 때 과연 그러한 인간의
정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
는 것인지 여쭙어 보고 싶고요. 또 한가
지는 부처님 법과 인간 사회의 법이 둘
이 아니게 융합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인도해 주십시오.

문 물론 둘이 아니죠. 다 둘이 아니
건만 막이 있어서 정신계를 조금도
생각 안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막아놓고 생각을 못하니까 일이 그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옛
날에는 지구의 생명들을 물로 죽게 하고
불로 죽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
먹는 대로 되느니라. 마음이 자기를 죽이
고 살리고 하느니라.'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
려있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 둘이 아니죠.
전부가, 이 몸 하나 가지고도 공법이며
전체가 공법이고 공생이고 공심이고 공
체고 공용이고 공식이예요. 그러기 때
문에 하나도 그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려면
그렇게 할 안하죠. 옛날에 스님을 국사로
정할 때에도 선지식을, 즉 마음과 근본
것을 깨우쳐서 이끌어 가는 그런 분을
국사로 모셨어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 많았지만 세상이치가 보이는 걸로
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깨치신 분을 모셨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은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쫓아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죠. 좀더 전체를
생각하고 '나' 라는 게 빠지면 좋을텐데
말이에요. 그런 일들도 생각할 때마다 관
하면 그대로 또 벌어지겠죠. 우리들의 생
각, 살림에 따라서 다 벌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
생전에 공부할 때 구경경지에 이르러야
만 됩니다. 구경경지란 삼세를 한데 포함
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그
하나도 공해서 둘 아니라는 걸 알 때에
비로소 구경경지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
이란 것도 이름이지 실체는 아니죠. 그러
니까 자기 주인공만 열심히 믿고 가면
거기에는 일체제물이 합쳐져 있다 이 소
립니다. 딱 이름 부를 게 없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자기 뿌리와 내 뿌리가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제자
다 스승이다 하고 둘이 되겠습니까? 그
러니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우
리가 이것을 생활 속에서 잘 하셔야만

하고 거기다가 다 굴러놓는다면 저절로
통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못났든 잘
났든 자기가 태어난게 화두예요. 자기가
없으면 상대가 있나? 자기가 없으면
부처가 어딴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닥쳐도 눈감짝 하지 마시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예요.

옛날에 어떤 공부하는 사람은 마나
이 돌아가서도 눈을 한방울 안 흘렸대요.
왜냐하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오
히려 몸을 당질당질 추면서 '세상에
생고생 하다가 인제 사인교를 타고 올라
가는구나. 참, 당신 좋잖아. 나도 바로
아갈 거야.' 하고 그냥 막 몸을 추고 즐
거워했대요. 자식들이나 딸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죠. 마나님 돌아가시고 마
친 게 아니냐고 하니깐 그 할아버지 하
는 소리가 '당신네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혔소. 그러니 눈 뜨고 귀가 열렸으면
당신 딸 하나하나 두박두박 때어놓는
대로 법이고 때어놓는 대로 도인 것...'
하더라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전체를, 삼라
만상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할 때 처음은 다 버리고 두번째에는 다

불법공부는
다 버리고
다 얻어서
다 내주어야
합니다

얻어서 세번째는 다 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처음엔 다 놓아서 공부하고, 두번째는
다 뺐으니까 다 얻었던 말이에요. 세번째
가서는 얻은 걸 다 베풀어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보면 어
떻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특히
부모없이 사는 애들도요. 소년소녀 가장
이라 하나요. 그걸 볼 때는 그냥 지나치
지 마시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고 관
해서 마음을 그쪽으로 내주세요. 내가 못
도와줄 형편일 때 마음이라도 내 주변
판에서라도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서로의 인연으
로, 주인공의 인연으로써 브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떡 하나로 제사 되는지

문 불교방송을 듣다 보니까 한이음
선원에서는 제사를 올릴때 육법공
양을 하지 않고 동그럼 떡 하나만 놓고
한다는데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답 사찰에서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를
할 때에 제가끔 뜻이 있어서 여섯가
지 공양물을 정성껏 준비해 올리게 됩니
다. 우리 선원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떡 하나만이라는 얘기는 잘못 전해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형편이 허락치 않아서
상을 차리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밥해 놓고
떡해 놓고 갖가지로 차리지 않더라도
향 초, 맑은 물, 그리고 과일 조금, 동그
런 우주떡 한 접시로도 된다는 얘기입니
다.

생전의 스승로라던 조상님이 좋아하시
던 음식을 이것 저것 차려놓는게 잘하는
일로 여겨졌지만 마음 한번 풀리게 굴
려서 조상님과 내가 못 아는데 한이음이
된다면 오히려 조상님이 좋아하시겠죠.
진실되게 자부처를 믿고 마음공부를 하
는 분이리란 말입니다.

협찬 주인공